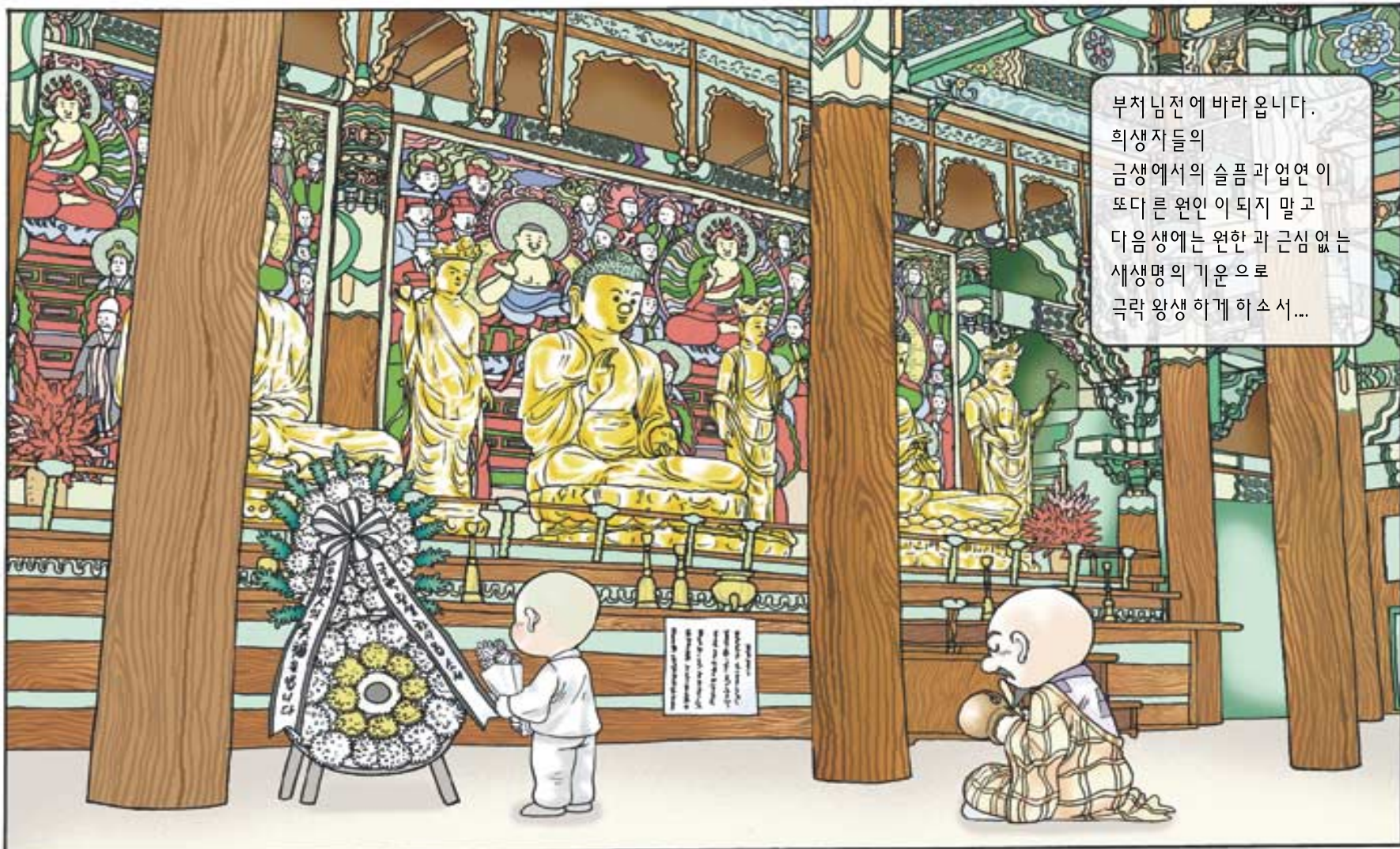


#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10화)

## “꿈”은 전생의 업이다

〈출전: 상응부경전 12. 24〉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 이렇게 들었다

## 새 대통령 취임

### 전문성왕의 덕으로...

새로운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은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선재의 기대는 남달랐다. 그가 겪었던 개인적 역경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슴아파했고 그런 사람들의 힘이 모여 우리의 대표자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우리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말하는 내용인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다.

취임식을 보던 선재는 대통령이 전문성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부처님께서 전문성왕을 거론하셨을 때에도 꼭 불교를 널리 알리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불교나 정치나 사람을 인락하게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면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차이만 있을 뿐 그 역할은 같아야 한다.

<대살차니전자소설경>에서는 ‘왕 중의 왕을 전문성왕이라 한다’면서 ‘이 법왕의 통치는 칼과 몽둥이도 없고 원망도 없다. 법에 의지하여 덕을 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므로 모든 악으로부터 행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숫타니파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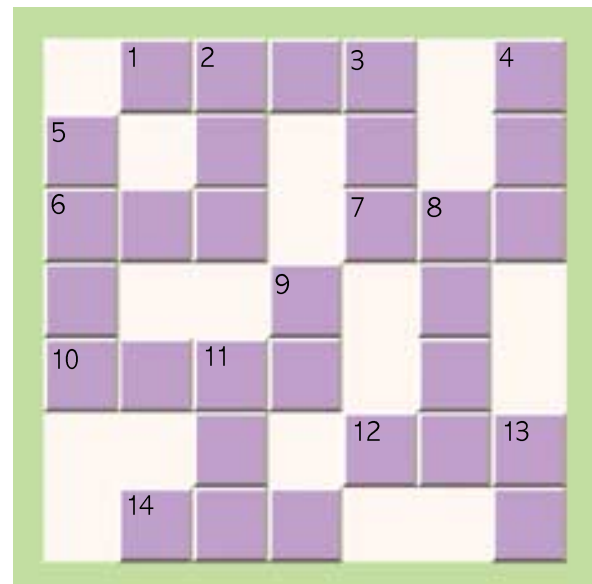
에서는 ‘권세 적은 무사 가문의 사람이 욕망이 커져서 이 세상의 왕위를 얻으려 하면 파멸의 문이 된다’고 경고한다.

협난했던 지난 세월을 기억하는 선재로서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다.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밋지국을 거론하신 내용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아나나, 너는 밋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가지고 바른 일을 서로 의논하여 몸소 지킨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느냐? 밋지국의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뒷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한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밋지국 사람들이 법을 받들어 삼가야 할 것을 알고 예의를 어기지 않는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언제나 안온하여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다.”

전문성왕이 되든지 부처님이 될 것이란 아시타선인의 예언은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성왕이 이 땅을 통치할 때라야 미륵부처님도 도래하신다 한다. 5년후 선재는 미륵부처님을 만나고 싶다.

■ 최원섭(성철선사서연원 연구실)



## 교리퍼즐

### 가로

1. 보살이 지녀 아함 47가지 서원. 법회시 찬불가로 도 부름. 6. 번뇌 망상이 없는 그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신하고 뉘는 수행. 상승. 7. 조선시대 선종 시와 함께 시행한 승과의 하나. 10. 선종의 종지로 문자에 얽매지 않는다는 뜻. 12. 규모가 큰 법회. 경전을 강론하는 큰 법회를 뜻함. 14. 정도에 있는 절의 나무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광명을 관할. 한자로 寶樹觀.

< 411호 「교리퍼즐」 정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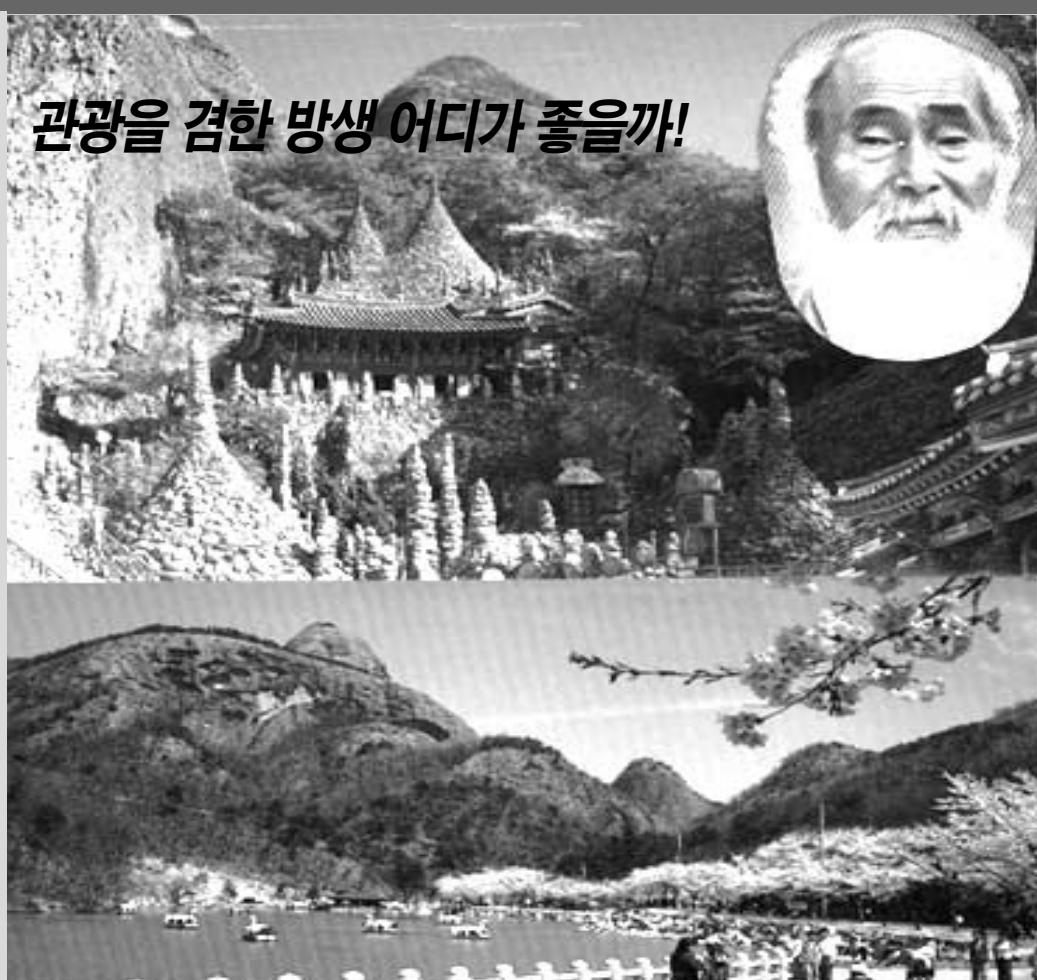


### 세로

2. 부처님의 광대함 서원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돕고, 괴로움의 바다에서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의 작용에 비유한 말. 3. 1916년 소태산 박중빈이 만든 종교. 4. 보시 가운데 하나로 경전 등 부처님의 말씀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주는 것. 5. 고요한 곳에서 정신을 통일하여 부처님의 상호를 연상하고 거기에 깃들여 있는 공덕에 생각을 집중시키는 염불. 8. 사회로 말하면 헌법과 법률을 뜻함. 9. 수행자를 뜻함. 누더기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사는 수행자의 삶에서 유래된 용어. 11. 문(聞)과 사(思)와 수(修). 문은 불법을 청하여 아는 것. 사는 이것을 스스로 사유하는 것. 수는 불도의 실천. 13. 회광반조의 줄임말. 회광반조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여 수도하는 것을 뜻함.

# 신비의 마이산 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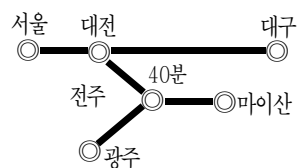
##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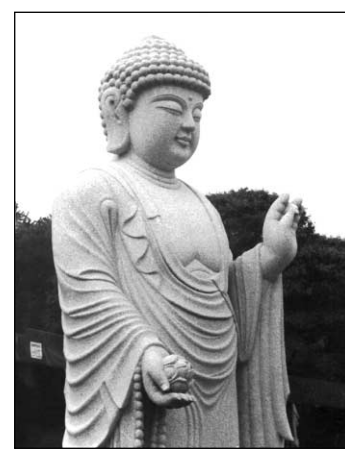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 063) 433-2900, 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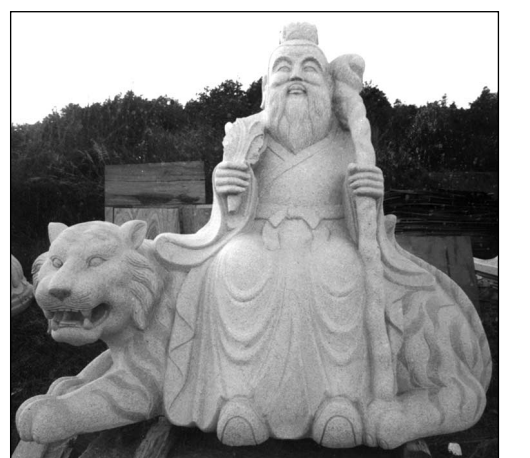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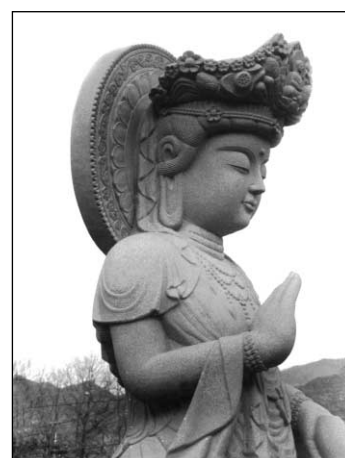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